

# 칼빈의 교회 이해

김기련 (신학대학 교수, 역사신학)

## 1. 서언(序言)

역사적으로 교회론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이단과 분파들의 도전에 대처하게 됨으로 생겨났다.<sup>1)</sup>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이단사설(異端邪說)의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Identification)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조적이고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한다. 첫째, “교회가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 발전하지 않고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양적(교회 수, 교인 수, 교회재정)인 면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질적인 면에서 신도들의 신앙적 열의(집회 참가, 봉사, 헌신 등)가 저하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표현이다. 둘째, 오래 전부터 해왔던 말은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다” 라든지 “교회가 교회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척교회 실패 내지 무용론이 오가고, 교회의 대형화와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비판한다. 셋째,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기독교 제도권 교회 밖에 있는 이단적 교회도 교회라고 부를 것인가”? 통일교회나 천부교(天父敎, 전도관) 또는 여호와 증

---

1) 교회론은 데키우스 박해시 배교자(背敎者)에 대한 문제로 노바티안(Novatian)主義者들이 교회를 분리해 나가자 키프리안(Cyprian)이 카톨릭주의 교회론을 발전시킴으로 시작되었다.

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나?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은 무엇인가? 라고 바꾸어 질문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교회 자체의 본질과 생명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몰트만(J. Moltmann)은 그의 교회론에서 “모든 세대마다 교회는 그의 사명과 입장과 목표를 뚜렷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2)</sup>라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통 교부들의 교회관을 알아본 후 전통적으로 권위 있게 내려온 중세 칼빈의 교회관을 밝힘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권위를 파악하려고 한다.

## 2. 교부들의 교회관

이레네우스(Irenaeus)는 영지주의자들이 비밀전통을 자랑하는 것에 반박하여 정통교회의 사도적 전승을 강조하였다.<sup>3)</sup> 영지주의자들도 그들의 교리, 의식, 및 모든 관습이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들은 성서와 신앙 규범도 가지고 있었으며 시편과 찬송가도 사용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자들의 신비전통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 내에는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의 규칙’(the rule of faith) 혹은 ‘진리의 규칙’(the rule of truth)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같은 사도적 전승은 ‘장로들의 계승’으로 수호되어 왔다는 것이다.<sup>5)</sup>

2) Jürgen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7), 1.

3) Irenaeus, *Against Heresies*, I, 6, 2; I, 8, 1; III, 2, 2; III, 14, 1.

4) A. v Harnack, *History of Dogma*, Vol., I(New York: Russell & Russell, 1958), 242.

이 사도적 전승으로 하나의 신앙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이 사도적 전승에 따라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나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그 신앙을 깊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이레네우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고 이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이루는 공동체이며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성령이 있으며 또 성령이 계신 곳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모든 은혜가 있다”<sup>7)</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령과 결합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어머니(교회)의 품속에서 생명의 자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한 샘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이다.<sup>8)</sup>

터툴리안(Tertullian)도 마르키온 이단을 반박하여 사도적 전승을 교회 존립의 근거로 삼았다. 터툴리안은 진정한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레네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사도적 전승에 따라 카톨릭 교회가 진리의 취득시효(取得時效, Prescription)에 있어서 앞선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진리

5) Irenaeus, *Against Heresies*, III, 2, 2; III, 3, 2.

6) *Ibid.*, I, 10, 1-2; III, 4, 2.

7) Irenaeus, *Against Heresies*, V, 8, 1; V, 10, 1.

8) *Ibid.*, III, 24, 1.

9) Tertullia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x vii.

“그러므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소유할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저들은 다음과 같은 심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 왔는가? 너희들 중 하나도 내게 속한 자는 없으니 너희는 나의 소유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실로 마르키온이여, 무슨 권한으로 너는 나의 나무를 찍는가? 발렌티누스여,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너는 나의 시냇물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가? 아펠레스여, 너는 무슨 권세로 나의 경계표를 옮기는가? 이 남은 자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너희 마음대로 갈고 뿌리느냐? 이것은 나의 소유이다. 나는 이것을 오래 소유하고 있었다. 너희보다 먼저 나는 그것을 소유하였다. 나는 이 재산의 본래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바 틀림없는 양도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도들의 상속자다. 저들이

와 신앙을 받았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이 사도적 교회와 하나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sup>10)</sup> 터툴리안은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고 흩어져 있지만 원초적으로 사도적 전승에 따라 하나이며 이 사도적 교회는 한 믿음, 한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계시, 같은 성례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하였다.<sup>11)</sup>

어거스틴은 교회를 분리해 나간 도나투스파를 대항하여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없다"<sup>12)</sup>라고 했으며 오리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sup>13)</sup>라고 하였다.

교회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키프리안이다. 키프리안의 교회론은 251년 초에 쓰여진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 (De Unitate Ecclesiae)에 나타나 있다. 키프리안에 있어서 교회는 보이는 한 단체로서 사도 때부터 전승되어 오는 제도 밑에 있으며 각 교회에 있어서의 감독의 계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 교회는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사도들이 전해 준 정통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키프리안의 중요 관심사는 교회의 일치에 있었다. 그 이유는 노바티안주의자들이 데키우스 박해 시 배교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따로 북아프리카에서 교회를 분리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키프리안

---

그것을 저들의 자유의지로 처리하였고 법적 절차를 따라 위탁하였으므로 나는 이를 소유한다. 그러나 너희들에 대해서는 사도들은 항상 상속자로 보지도 않고 외인들이요 원수들로서 거절하였은 것이 사실이다."

10) Tertullian,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xxi.

11) Ibid., xx.

12) Henry Bettenson, The Lather Christian Fathers(Oxford University, 1976), 237.

13) Henry Bettenson, The Early Christian Fathers(Oxford University, 1976), 243.

은 감독의 권위를 주장하고 교회의 질서와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키프리아는 교회는 하나의 공교회(Catholic Church)라고 보았다. 키프리아의 교회론과 감독직에 대한 견해는 1)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 교회도 하나요, 주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 감독도 하나이다. 2) 신자들에게는 구원을 위해서는 카톨릭 교회 외에 다른 집이 없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었던 찢겨지지 않은 통옷(요한 19: 23)은 통일된 교회를 의미한다.<sup>14)</sup>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출 12: 46)는 한 집 안에서 먹었다. 여기서 한 집이란 하나의 카톨릭 교회를 상징한다. 카톨릭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3)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자는 누구이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sup>15)</sup> 4)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Salus extra ecclesiam non est).<sup>16)</sup> 5) 교회는 감독들 통일에 기반을 두었기에 감독은 교회 안에, 교회는 감독 안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독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도 있지 않다.<sup>17)</sup> 6)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수위권을 허락하셨다. 특히 감독들은 「교회의 일치」를 확립하고 방어해야 하는데 그것은 감독직이 유일하고 분열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처럼 키프리아는 교회가 하나라는 근거를 세례와 감독직에서 찾았다. 키프리아는 참 교회는 하나이며, 참 세례도 하나의 교회로서 베푸는 것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단자나

---

14) Cyprian, Von der Einheit der Kirche, Kap., 7.

15) Ibid., Kap. 6.

16) Cyprian, Brief 73, 21.

17) Cyprian, Brief, 66.

분열된 교회가 주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할 때 교회의 단결과 그 공동체의 연결과 결부시켜서 지적한 것은 감독직과 그 사역이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통일성은 감독직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 교회들이 있으나 베드로에 의해 유래된 유일한 교회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태양이 많은 광선을 가지고 있듯이,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듯이, 한 수원지(水源池)에서 물이 나와 많은 시내가 흐르듯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sup>18)</sup>는 것이다. 키프리안에 의하면 베드로는 교회 일치의 원형이고 동시에 감독직의 원형이다. 키프리안은 자신의 감독직에서 그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느꼈다.<sup>19)</sup>

### 3. 칼빈의 교회관

#### 1. 교회의 본질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13장까지 할애하여 교회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4권 첫 부분에서 교회의 본질을 “신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선택받은 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로 논한다.<sup>20)</sup>

---

18) Cyprrian, Von der Einheit der Kirche, Kap., 5.

19) Gert Haendler, Von Tertullian bis zu Ambrosius, 63.

20) Inst., IV, 1, 1-4.

### 1) 신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초대 교부들로부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sup>21)</sup>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칼빈은 말한다.<sup>22)</sup>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키프리아이다. 키프리아에 의하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누구이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다.<sup>23)</sup> 칼빈 역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를 모으시기를 기뻐하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에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숙하여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인도를 받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sup>24)</sup> 또한 어머니(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죽은 육신을 버리고 천사처럼 되기까지 우리를 그의 보호하래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5)</sup>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신앙을 생기게 하고 믿는 자를 양육한다. 따라서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신앙이 생길 수 없으며 죄의 용서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sup>26)</sup>

###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정적인 제도나 기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피차 봉사와 도움을

21) Cyprian, Brief 73, 21.

22) Inst., IV, 1, 1.

23) Gert Haendler, Von Tertullian bis zu Ambrosius, 62: Cyprian, De unitate catholicae ecclesiae, 207-233.

24) Inst., IV, 1, 1.

25) Inst., IV, 1, 4.

26) Ibid.

주는 공동체이다.<sup>27)</sup> 교회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외적 수단’이라는 제목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해 준다.<sup>28)</sup> 그리스도 몸이 온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主)가 되며 한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형제들은 그 지체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공통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공통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은 형제애로써 함께 결합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유무 상통하게 된다고 하였다.<sup>29)</sup>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상하의 질서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질서와 다스림이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즉 지체간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개인 으로나 공동체로서 몸과 영혼을 바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 3)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의 교회

칼빈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 묘사했다: “신경(信經)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조항은 가시적 교회뿐만(현재의 우리의 주제인) 아니라 죽은 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다”.<sup>30)</sup> 칼빈은 어거스틴과 위클리프와 후쓰가 언급한 “거룩한 카톨릭 교회는 우주적으로,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었거나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이나 장래에 믿을 모든 예정(선택)된 사람들의 전체 총수(Ecclesia

27) Inst., IV, 1, 2.

28) Inst., IV권 전체 제목; T.H.L. Parker, Ca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127.

29) Inst., IV, 1, 3.

30) Inst., IV, 1. 2.



sancta catholica, id est universitas, que est omnes predestinati presentes, preteriti et futuri= Ecclesia est totus numerus predestinatorum presentes, preteri et futuri)"<sup>31)</sup>라는 전통에 따라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숨은 선택에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2)</sup> 칼빈에 의하면 '누가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칼빈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불가시적(不可視的)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로서 내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며 사람의 눈과 판단에는 안 알려지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sup>33)</sup>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인도 하에 공동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따라서 사람의 모임과 기관을 교회라고 부르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의 선민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기초인 것이다.

#### 4)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교회

신조에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교회라고 하였다.<sup>34)</sup>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

31) Inst., IV, 1, 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 331.

32) Inst., IV, 1, 2.

33) Inst., IV, 1, 7-8.

Manfred Jacobs, Die evangelische Lehre von der Kirche (Lauenburg/Elbe: Druck von Gebrüder Borchers, 1962), 49 und 117.

표현해주는 말이다. 칼빈은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의 머리라면 형제의 우애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피차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35)</sup>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연합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이익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교통하며 분배한다.<sup>36)</sup>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필요하다. 교회는 성도들의 친교 가운데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며 상호 협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다고 '성도의 교통이 각 사람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는 시민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7)</sup> 칼빈은 결코 재세례파 사람들 중 일부, 곧 비데만(Jacob Widemann)과 후트(Hans Hut)가 강조한 교회 내에서의 재산공유제도<sup>38)</sup>를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옹호하였다.<sup>39)</sup>

## 2. 교회의 성격 및 기능

### 1)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칼빈은 어거스틴의 전통에 따라 교회의 성격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누어 설명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가시적 교회를 다루면서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 언급한다. 칼빈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 교회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34) Inst., IV, 1, 3.

35) Ibid.

36)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129.

37) Inst., 1, 3.

38) William Estep, The Anabaptist Story(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65.

39) 이양호 지음, 칼빈 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90-192.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構成員)은 예정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교회에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sup>40)</sup>는 것이다. 제도적 가시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참으로 구원을 얻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sup>41)</sup> 전자(선택된 자)는 하나님께만 보이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이 불가시적인 교회를 강조한 것은 당시의 중세 로마교회가 가시적인 면에 치중하여 제도적 교회만 강조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데 대한 반발이라 볼 수 있다.

칼빈은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제도적 교회에 대해 언급한다. 가시적 교회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들은 야심과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이며 불결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sup>42)</sup>

칼빈은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비교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도적 계승을 비롯하여 가시적인 제도적 교회의 여러 가지 자란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가 외부적인 양상(樣相) 없이도 자존(自存)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교회의 외부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반대한 것

40) Inst., IV, 1, 7.

41) Inst., IV, 1, 2; IV, 1, 7. 어거스틴은 교회는 “밭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있어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42) Inst., IV, 1, 7.

이었다.

후기에 와서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다. 그 까닭은 그가 말한 대로 “어머니라는 가시적 교회”의 명칭을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다. 가시적 교회는 신자들이 출생하고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아 육신을 벗고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계속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사죄와 소망과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항상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sup>43)</sup> 그러므로 사 람들과 관련된 보이는 교회를 중히 여기고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칼빈이 말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이다. 단지 교회를 두 가지 각도에서 투시하여 본 것이다. 교회의 두 양면을 조화 있게 유지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업(聖業)을 위하여 있는 세상의 살아 있는 도구이며 방편이다. 따라서 칼빈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다만 멸망이 있을 뿐임을 요리문답서에서 밝혔던 것이다.

## 2) 하나의 보편적 공(公) 교회와 제네바 교회

칼빈에 의하면 보이는 교회는 하나의 보편성을 지닌 교회이다(Katholizität der Kirche).<sup>44)</sup> 칼빈은 키프리안의 “교회의 일치” 제 5장을 인용하여 교회는 유일하게 공적으로-보편적으로(katholisch) “하나”임을 강조한다. 즉 태양이 많은 광선을 발하지만 그 태양(빛)은 하나이고 나무가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으나 한 뿌리와 몸통에서 뻗어 나온 것과 같고 한 수원지에

43) Inst., IV, 1, 4.

44) Manfred Jacobs, Die evangelische Lehre von der Kirche. 51.

서 물이 나와 많은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다원(多元)을 이룬다.<sup>45)</sup>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 보편적 교회는 모든 나라에서 모은 큰 무리이다. 이 보편적 교회는 나뉘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리의 한 진리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며 동일한 종교의 유대로 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 교회 아래 모든 개체 교회가 포함되며, 그 개체 교회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여러 도시와 촌락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sup>46)</sup>

칼빈은 올바르게 행해지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준수를 통해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다른 결점이 있어도 그 공동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47)</sup> 그것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리지가 함께 섞여 있으며 심판의 날까지 악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결점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된 노력인 것이다. 결국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분리를 더욱 회피해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하였다.<sup>48)</sup>

그렇다고 여기서 칼빈이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조직체로서 공적인 교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분열을 개혁자들에게 돌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교리를 말하고, 그들 카톨릭 교회의 법(교회법)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또 성자송배와 구원을 위한 선행과 대도(代禱) 및 미사 등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을 교회의 분열자요,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는 교

45) Inst., IV, 2, 6; Udo Smidt(Hersg.), Johannes Calvin und die Kirche (Stuttgart: Evangelisches Verlagwerk, 1972), 23.

46) Inst., IV, 1, 9.

47) Inst., IV, 1, 12.

48) Inst., IV, 1, 10.

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로서 하나로 되어 있다”고 반박하였다.<sup>49)</sup>

보이는 교회에 관심을 돌려보면, 칼빈은 제네바에 보이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칼빈은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사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일차적인 기능은 루터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교회는 또한 인간 사회에 대하여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드러낼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있다.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루터의 견해(신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와 재세례파의 견해(선택된 자들만 모이는 교회)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칼빈의 생각으로는 모든 주민이 교회에 속해야 했다. 이들이 교회에 속했던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에 이르렀고, 제네바의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있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택함을 받은 데 따르는 책임,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충족시키는데 있었다. 이런 견해에서 국가의 기능은 교회에 봉사하는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 이를 범하는 자를 처벌하는 일이 국가의 임무였다.

한 마디로 말하면, 칼빈은 루터의 「신민의 교회」를 받아들여 그것을 재세례파의 「모이는 교회」로 변모시키면서 재세례파의 분리주의는 버렸다. 칼빈의 교회는 모든 공동체를 포함했기에 신민(백성)의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신도들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로 취급되었다.<sup>50)</sup>

49) Udo, Smidt, opcit, 18-22.

### 3)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칼빈은 교회의 임무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올바르게 행하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수행이라 했다. 따라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근본적인 구별을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에서 찾는다. 칼빈은 아우스부르크의 신조와 마찬가지로 참 교회의 특징으로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제도에 따라서 배푸는 성례전을 들고 있다.<sup>51)</sup> 그리스도는 설교와 성찬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에 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시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장소에서 교회가 현존함을 보증한다. 칼빈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참 교회의 표징으로 인정하는 것은 칼빈의 교회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구주와 주로서 인정되며 높임을 받을 경우에만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있다. 이것이 참 교회의 표지이다.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盜用)하기를 요구하는 거짓 교회와 모든 모임으로부터 참 교회를 구별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주권과 제사장직이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곳에 교회가 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거기는 혼돈만이 남게 된다. 칼빈은 로마교회를 참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로부터 분리를 주장한다. 그 이유는 로마교회가 패악(悖惡)한 교회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대신 거짓으로 꾸며진 통치체도로 교회를 처리하고 주님의 성찬의 자리를 신성 모독으로 더럽혔다는 것이며 예배를 미신 숭배로 떨어뜨리고 교리를 매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2)</sup> 따라서 로마교회가 설교와 성례전이라는 교회

50) 윌리엄 A. 스코트 著, 金快相 譯, 改新教神學思想史, 66-70 쪽.

51) Inst., IV, 1. 9; IV. 2. 1.

의 영원한 표지를 상실했으므로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마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의 주요 통로는 미사인데, 칼빈은 천박한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미사를 최대의 신성모독으로서 가장 혐오한다고 하였다.<sup>53)</sup> 이것은 루터가 로마교회가 미사를 희생제사로 드리고 또한 미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공격한 내용과 일치한다.

### 3. 교회의 사역과 권징(勸懲)

#### 1) 교회의 사역자

칼빈이 교회의 본질을 논할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교회는 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처리하기 위해 질서를 정하시므로 교회의 주권, 지배, 감독은 주님께 있다고 본다. 이 목적을 위해 교회가 지상에 존속하기 위해 이 직무의 대리자, 사신을 택하여 도구로 쓰신다.<sup>54)</sup> 교회의 직임의 종류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이 있으며 이 중 목사와 교사는 본래적이고 항구적이며 나머지는 일시적인 직무라고 한다.

목사는 제자훈련, 성례전 집행, 견책, 권면하는 일을 맡고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 맡았다.<sup>55)</sup> 목사는 사도적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임무를 수행하나 두 개의 특별한 직무는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 집행이다.<sup>56)</sup> 1541년의 「제네바교회의 규정」 4항을 보면 목사의 임무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교훈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견책하기

52) Inst., IV, 2, 2.

53) Inst., IV, 2, 9.

54) Inst., IV, 3, 1.

55) Inst., IV, 3, 4.

56) Inst., IV, 3, 6.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거행하며 장로들과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적인 혼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57)</sup> 그러면 목사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제 6 항에 목사에 대한 검증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첫째는 목사로서의 소명의식으로, 그가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신자들을 경건한 생활로 잘 이끌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sup>58)</sup>

칼빈이 말하는 목사와 교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둘 사이의 차이가 다음과 같다고 믿는다. 교사들은 제자훈련이나 성례집행이나 경고와 권면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 맡는다. 이것은 신자들 사이에서 교리를 온전하고 순수하게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직은 그 자체 내에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sup>59)</sup>

장로의 직책은 목사와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행하는 일을 맡았다.<sup>60)</sup> 일반적인 관습으로 교회는 장로회(Consensus Seniorum)를 구성하여 교회의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역사적으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는데 어떤 장로는 가르치는 일에 임명되었고 어떤 장로는 도덕적인 문제만 감찰하였다.<sup>61)</sup> 칼빈 당시 장로회에 소속하여 교회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장로들은 개 개인의 품행을 감찰하고 실수하거나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경고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체에 보고하고 견책의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sup>62)</sup>

57) Hans J. Hillerbrand, Brennpunkte der Reforma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ert, 1964), 209.

58) Ibid.

59) Inst., IV, 3, 4.

60) Inst., IV, 3, 8.

61) Inst., IV, 11, 6.

집사직은 헌금 사용의 대행 일을 맡아보며 병자들을 돌보고 구제에 힘쓰는 것이다.<sup>63)</sup>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의 구제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들을 돌보는 집사들이다.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는 두 종류의 집사가 있었는데, 곧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들이었다.<sup>64)</sup>

교인은 선출되어 직분을 맡은 이들이 그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 한다. 칼빈은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말했다.

## 2)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말씀의 선포)에 참회하지 않는 완고한 자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를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칼빈은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하여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鼓舞)하는 박차(拍車)와 같고 더 심각하게 타락에 빠져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65)</sup> 칼빈은 교회가 과오를 시정하거나 벌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 안에 보존시킨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행악자들을 교회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성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악한

62) Hans J. Hillerbrand, *opcit.*, 212.

63) *Inst.*, IV, 3, 9.

64) *Inst.*, IV, 3, 11.

65) *Inst.*, IV, 12, 1.

사람들과 계속 교제함으로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요. 셋째로 징벌 당한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촉구하는데 있다.<sup>66)</sup> 만약에 교회가 각자를 제멋대로 방임해 두거나 권징을 폐지하거나 권징을 부활시키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교회의 완전한 해체를 이바지하는 것이 된다고 칼빈은 말했다.<sup>67)</sup>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의 존립은 교회의 권징의 적용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칼빈은 퇴폐한 제네바를 정화하고 엄격한 신정정치(神政政治, Theocracy)를 수립하기 위하여 「컨시스토리」(Consistory, Consistoire 평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평의회는 목사 5인, 장로 12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치, 종교 양면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의 풍속(風俗)과 도덕을 다스리기 위하여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주민들을 통제하였다. 통제의 대상은 민속축제와 연극이었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춤, 카드놀이, 도박, 외설, 사치, 비속한 노래, 폭음, 아내 구타, 간음, 교회 불참 등이었다.<sup>68)</sup>

칼빈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몰아냈다.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는 칼빈의 친구로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 고교) 교장이었는데 성서에 대한 비판 때문에 교장직을 박탈당하고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카스텔리오는 구약의 아가서를 감시연가(甘詩戀歌 = 감미로운 시와 연애 노래)이지 당시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함이 아니라는 의견과 그리스도께서 육에 갇힌 영을 위해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

66) Inst., IV, 12, 5.

67) Inst., IV, 12, 1.

68) Wilhelm Moeller, Lehrbuch der Kirchengeschichte (Freiburg I.B Leipzig und Tübingen: J.C.B Mohr, 1899), 168.

았다는 것을 발표하여 칼빈과 충돌하다 쫓겨났다. 의사인 제롬 볼섹(Jerome Bolsec) 역시 예정설을 반대한 까닭에 금고(禁錮)되었다가 후에 추방되었다. 그러나 가장 사람의 이목을 끈 사건은 세르베르트(Michael Servet)의 분살(焚殺)이었다.<sup>69)</sup> 그는 스페인 신학자로 급격한 자유사상을 품고 29세 때 “삼위일체의 오류”(De Trinitatis Erroribus)라는 책을 썼다. 또한 1553년 “기독교의 만회(挽回)”를 저술하여 니케야 회의에서 정한 삼위일체설과 칼케돈 회의의 기독교론(2性 1 位格)과 유사세례, 이 셋은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논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선재(先在)와 예정론을 부인하였다. 세르베르트는 그의 저서 때문에 비엔나에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에 처하게 되자 이탈리아로 가다가 제네바에 들리게 되었다. 1개월 간 숨어 지낸 후 다시 도망치다가 체포되었다. 칼빈은 그를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극히 위험한 이단자라 하여 사형을 주장하였다. 시의회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이 칼빈의 입장을 지지하여 사형을 찬성하였다. 드디어 제네바 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1553년 10월 27일 세르베르트를 이단자로 화형 시켰다.

이렇게 엄격한 신정정치에 대해 반대가 일어났다. 칼빈의 조치는 다 합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철저한 이상을 가지고 일체의 반대와 싸워 이를 극복하고 의연히 그의 뜻을 관철하였다.<sup>70)</sup> 이처럼 칼빈의 강력한 신정정치가 계속 가능했던 것은 1555년 시의원 선거에서 칼빈은 프랑스에서 신앙 때문에 제네바로 망명해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69) Kurt Aland, Repetitorium der Kirchengeschichte III Reformation und Gegereformation (Berlin: Alfred Töpelmann Verlag, 1967), 93.

70) 김기련, 종교개혁사(대전;목원대학 출판부, 2001), 286.

또한 다섯 명의 시장 중 네 명이 칼빈의 측근에서 선출되었다. 그리하여 제네바는 칼빈의 도시가 되었고 스위스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이 되었다.<sup>71)</sup>

#### 4. 교회의 권위

칼빈은 교회에 속한 영적 권위로써 교리에 대한 권한과 입법(立法)과 사법(司法, 재판권)에 있다고 보았다. 칼빈은 교회에 있어서 권위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성서에 복종하는 권위라고 보았고 따라서 교회가 최종적 권위로 모셔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생각하였다.<sup>72)</sup>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서는 변할 수 없으며 성서의 권위는 교회의 모든 권위, 즉 교황이나 감독의 권위, 지방교회 회의, 세계교회 회의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칼빈은 교회의 권위를 성서의 권위 아래 종속시켰다. 또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서와 버금가는 것으로 여긴 전승을 성서보다 하위(下位)라고 규정하였다.<sup>73)</sup> 칼빈은 교회 자체의 권위를 다른 개혁자들보다 크게 강조하였다. 그것은 성례전과 성직 안수와 정경을 제정하는 권한이 다 교회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자신만이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릴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칼빈은 주장하고 중세적인 교황의 인간적 독단은 물론이고 무지하고 생각 없는 군중의 폭민정치도 결단코 교회를 다스릴 권위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능가할 아무런 권위도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고정된 원칙이다.

71) Kurt Aland, *opcit.*, 93-94.

72) *Inst.*, IV, 8, 1-3; IV, 8, 13.

73) *Inst.*, IV, 8, 14.

#### 4. 결론(結言)

지금까지 칼빈의 교회관을 이해하는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이제 칼빈의 교회관을 간단히 요약해보고 오늘의 교회의 문제점과 연관성을 찾으려고 한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로 이해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둘째로 교회의 본질은 ‘신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셋째로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로서의 교회’ 넷째로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이다. 교회의 성격에서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로 구별한다. 그러나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두 측면에서 하나의 교회를 본 것이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에서 참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라 하였다. 교회의 질서와 규율에서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규율은 크리스찬 생활의 중심 요소이다. 교회의 권위는 성서에 있고 성령이기도 하지만 최종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날 교회가 기업화되었다, 또는 대형화되었다”라는 문제에 우리가 대답하여야 할 말은 교회란 오랜 전통이나 큰 조직이나 경제력의 강함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말이다.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비록 수에 있어서 적고 경제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참 된 교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와 비대 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교회의 기업화나 대형화가 교회의 본질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교회 현상은 아니다. 과연 통일된 공동체로서 하나의 친교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칼빈은 한편으로 불가시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지상에서 한 개체 교회가 대형교회를 시도하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

으리라 본다.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교회가 교회구실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에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세상에서 ‘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교회는 그러지 못하다는 뜻이다. 교회는 타인을 전인적으로 구원(영, 정신, 육)하기 위해 방주로서의 교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고정식(굳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활동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이동식 장막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교회는 점차 굳어가고 있으며 교회 도그마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고 교세나 교회의 통계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섬기는 교회여야 한다.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교회 내에서의 권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단과 관계되지 않는 한 교단별로 권징의 문제를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신자가 이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견책을 피해서 저 교회로, 즉 다른 교단과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는 전통적 교리와 칼빈에 있어서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통일교회나 천부교(전도관), 여호와 증인도 교회라 할 수 있는가?”에서 그 대답은 절대적으로 부정이다. 그 이유는 참된 교회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전의 집행에 있는데 그들은 성서 말씀을 왜곡, 뜯어 고쳤고 그리스도보다는 인간의 우위를 드러냈기 때문이며 올바른 성례전을 거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해 봐야 하고 항상 복음(진리)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성격과 기능

을 올바로 실행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갱신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몰트만이 말한 “오늘날 요구되어지는 것은 변해진 사회적 상황에 능숙한 적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과 오고 있는 나라의 능력에 의한 교회의 내적 갱신이다”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의미심장한 말이다.<sup>74)</sup>

---

74) Jürgen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3.